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모순성 연구*

- ‘죽도문제연구회, 함평중학교 독도동아리, 2찬네루’를 중심으로 -

최장근**
nihonbu@daeg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면서 | 4. ‘2찬네루’에서 일본 네티즌의 반응과 표현 방식 |
| 2. ‘2찬네루(채널)’의 이념 성향 | 5. 맺으면서 |
| 3. ‘2찬네루’에서 한국 네티즌의 반응과 표현 방식 | |

主題語: 죽도문제연구회(Takeshima Problem Research Group), 독도(Dokdo), 죽도(Takeshima), 함평중학교(Hampyeong Junior High School), 2찬네루(2ch)

1. 들어가면서

한국 전남 함평중학교 독도동아리 학생 3명이 5월 중순에 시마네현(島根県) 56개 중학교에 일본의 독도 왜곡교육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냈다. 시마네현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내부 문건으로 보관하여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있다가, 선행연구¹⁾에서 밝혔듯이 ‘죽도문제연구회(竹島問題研究會)²⁾가 함평중학교에서 보내온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³⁾ 마침 같은 시기에 시마네현이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를 발족시켰는데,⁴⁾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죽도문제연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8A02929224).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 1) 최장근(2017.11) 「2017년, 죽도문제연구회의 독도영유권 날조와 선동 방식 -한국 함평중학교 학생이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제75집, pp.5-24
- 2) 竹島問題研究會는 시마네현이 설치한 웹사이트 ‘web 竹島問題研究所’ 활동의 일환으로 간헐적으로 연구회를 조작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음.
- 3) 산인(山陰)신문, 아사히(朝日)신문 로컬판, 요미우리(読売)신문 로컬판, NHK로컬방송, 류큐(琉球)신문 등 전국적으로 보도되었다.
- 4) 「第4期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第1回) 出席者名簿」
<http://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1/kenkyukaijokyo4.data/shussekisha-meibo.pdf> (검색일 2017.12.13).

구회의 좌장격인 시모조 마사오(下条正男)는 여러 언론과 소셜 네트워크에 함평중학교 학생들의 편지내용과 자신의 견해를 첨부하여 글을 올려 네티즌들을 선동했다. 그 내용은 현재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불법적으로 독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한국을 ‘악의 존재’, 시마네현은 일본정부도 하지 않는 영유권 회복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선의 존재’로 부각시켜 한국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일본정부가 독도정책에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함평중학교 학생들의 편지내용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일본국내 여론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네티즌들이 알고 있는 독도 영유권 인식이 어떠한 것인지, 이들 네티즌들은 대부분 시모조의 선동에 의해 댓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시모조의 날조된 영유권논리를 아무런 비판없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본 네티즌들은 날조된 논리를 사실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모조 마사오가 산케이(産経)신문에 기고했다고 하는 독도영유권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되고 날조되었는지 고찰하고, 또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고찰한다. 이 신문의 제목 기사는 「한국의 반응」 시마네 현의 중학교에 ‘독도는 한국 땅’⁵⁾이라는 것이다. 이 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직접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아니면 감정적 대응으로 한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지, 일본 네티즌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게다가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 발족 경위, 2찬네루를 선동한 장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시모조 마사오가 SNS(2찬네루[채널])에 올린 글⁶⁾에 대해 네티즌들이 「2017년 06월 13일 00:57」부터 「2017년 06월 16일 10:57」 사이에 ‘해외반응’(한국반응) 21개의 댓글과 ‘일본반응’(일본인) 110개의 댓글을 「무명씨」라는 이름으로 총 131개⁷⁾의 댓글을 남겼는데, 이를 분석한다.

연구의 가치나 의의에 관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인들의 한국과 독도 그리고 역사 인식에 관해 알 수 있고, 또한 일본인들의 언어구사 방식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5) 「【韓国の反応】島根県の中学校に『独島は韓国領』という手紙が大量に届く!送った韓国人学生らは英雄扱い「政治家よりこの学生がよっぽど愛国者」<http://lococonews.com/19212.html>(검색일 2017.09.06)

6) 「【竹島問題】「日本は正しい歴史を教えよ」韓国中学生が送りつけた手紙から見える‘子供の政治利用’‘教育の洗脳」<http://lavender.2ch.net/test/read.cgi/news4plus/1501792966/>(검색일 2017.09.12.)

7) 실제로는 136개의 댓글이 존재했다. 댓글은 앞글과 바로 이어지는 댓글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순번을 붙였다.

2. ‘2찬네루(채널)’의 이념 성향

시모조는 한국 중학생들이 보낸 일본의 ‘죽도’ 영유권 교육을 비판하는 글을 ‘2찬네루’에 올렸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볼 때, ‘죽도문제’에 한해서는 시모조가 애국자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자주 이 인터넷공간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2찬네루’(http://lavender.2ch.net)⁸⁾가 이념적으로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이트일까? 이번 한국학생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댓글을 보면 100% 모두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전제하에 한국측을 비난하는 댓글들뿐이었다. 일본에서 독도를 연구한 역사학자들 중에 1960년대의 일본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⁹⁾을 비판한 야마베 켄타로(山辺健太郎)¹⁰⁾, 1980년대의 카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¹¹⁾와 호리 카즈오(堀和生)¹²⁾, 2000년대의 시마네현의 ‘죽도’ 영유권 주장¹³⁾을 비판한 나이토 세이쥬(内藤正中)¹⁴⁾ 등 대부분이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결론을 도출했다. 일본의 시민들 중에서도 오사카의 “다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시민모임”¹⁵⁾ 같이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일본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으려는 모임이 있는 것처럼, 일본시민들 중에는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¹⁶⁾ 그런데 ‘2찬네루’의 이념적 성향은 이번에 함평중학교 학생들이 시마네현 56개 중학교에 일본의 날조된 ‘다케시마 일본

8) 현재 2찬네루는 존재하지 않고, 2찬네루 대신에 ‘5찬네루’(https://lavender.5ch.net/test/read.cgi/news4plus/1501792966/(검색일 2017.12.04)로 변경되어 225개의 댓글이 달려있다.

9) 川上健三(1966)『竹島の歴史地理的研究』古今書院 참조. 현재의 외무성의 ‘죽도’ 인식으로 이어오고 있다. 「竹島問題」(일본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검색일 2017.8.30).

10) 山辺健太郎(1965)『竹島問題の歴史的展開』『コリア評論』7-2

11) 梶村秀樹(1978)『竹島=独島問題と日本国家』『朝鮮研究』182

12) 堀和生(1987)『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朝鮮史研究会論文集』24

13) 下条正男(2004)『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親書377. 下条正男(2005)『「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시마네현의 인식은 시마네현 홈페이지에 수록되어있다. 島根県(2015)『竹島問題研究會』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검색일 2017.08.02)

14) 内藤正中・金柄烈(2007)『歴史的検証独島・竹島』岩波書店. 内藤正中・朴炳涉(2007)『竹島=独島論争—歴史から考える—』新幹社 참조.

15) 「일본의 역사학자 등으로 구성된 ‘다케시마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시민모임’ 회원 3명(구보이 노리오 전 모모야마학원 강사, 구로다 요시히로 전 쇼인여대 교수, 이치노헤 쇼코 아오모리 운쇼사 스님)은 23일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부산 민족학교 독도학당 관계자 등과 함께 ‘Dokdo is Korean Territory’(독도는 한국 땅)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한국 말로 ‘독도는 한국 땅’이란 구호를 외쳤다. 「일본 학자들, 독도에서 “독도는 한국 땅”」『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31531011&code=950100#csidx205d4a16e8444259542cd08c2c403b0(검색일 2017.12.13)

16) 이노우에 히로키(샌다이시 거주민), 우루시자키 히데키(가나자와교회목사, 역사연구가), 요시자와 후미토시(니이가타 국제정보대학교수), 호사키유지(세종대학교 교수), 마고자키 우케루(전이란대사, 외무성 국제정보국장), 요시무라 하루유기(오사카 야오 시의원)등 수없이 많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pleton3&logNo=220286223254(검색일 2017.12.13)

영토' 교육을 비판하는 편지에 대한 '2찬네루' 네티즌들의 대응만 보더라도 잠작하고도 남을 정도이다.

‘해외반응’이라고 하여 한국 측의 반응은 23개, 일본 ‘국내반응’이라고 하여 ‘110개’ 댓글이 달려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학생들의 편지에 대한 댓글 모두가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객관적인 사료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없고, 오히려 시모조 마사오 등의 죽도문제연구회가 날조한 논리를 근거로 편지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편지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론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편지내용과 관련이 없는 한국이라는 국가와 민족을 부정하는 것들뿐이다. 이처럼 사실관계를 언급하여 냉정하게 접근하여 논리를 객관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전무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성향으로 봐서 ‘2찬네루’ 인터넷공간에서 활동하는 일본의 인터넷 국민들은 보편적인 일본인들은 아닌 것임에 분명하다. 더욱이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좌편향적인 일본인도 아니므로 우익성향의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간단히 알 수 있다.

‘2찬네루’가 우익성향¹⁷⁾의 토론방이라고 할 때, 일본 국내의 일본인 중에서 성향 비율을 보면, 우익, 중도, 좌익 성향이 30:60:10이라는 설명도 있다. ‘2찬네루’는 30%에 해당하는 우편향 일본인들의 독도문제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이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질 때는 독도문제에 대한 ‘중도성향의 일본인, 좌편향의 일본인’의 사고형태에 관해서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연구라고 하겠다.

3. ‘2찬네루’에서 한국 네티즌의 반응과 표현 방식

이상에서 시모조 마사오가 ‘2찬네루’에 올린 한국 학생들이 일본의 죽도 영유권 교육을 비판한 편지에 대해 「해외 반응@6969뉴스」¹⁸⁾으로 21개의 댓글을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모두 「한국의 반응」이었다. 일본 인터넷공간에서 일본 우익들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17) 「右翼：国粹主義、愛国主義など、国を中心として物事を考える人達です。日本人としてのプライドを重く考え、反国家的な、国家の利益を妨害する事には敵対的な考えを持っている人達が多いです。又、第2次世界大戦の経験で海外を敵視しています。主に中国、北朝鮮、韓国。年配右翼の方は反米の方も多いです。基本的に貧しくなってくると右翼が増えます。」「極左・左翼・中道左派・中道・中道右派・右翼・極右 について」, https://detail.chiebukuro.yahoo.co.jp/qa/question_detail/q1119800106?_ysp=5pel5pys5Lq644Gu5bem57%2B844CB5Lit6YGT44CB5Y%2Bz57%2B81Oani%2BaIkOavI0eOh%2BOBrw%3D%3D(검색일 2017.12.04.)

18) 「海外の反応@ロコロコニュース」

네티즌들도 있다는 말이다. 「한국의 반응」으로 21개의 댓글을 분류해보면, 「일본 역사왜곡 비난」, 「영토 내셔널리즘」,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격려와 감사」, 「올바른 역사교육의 필요성」, 「정부정책 부재에 대한 비난」 등 5개의 성격으로 분류되었다.

먼저 「일본의 역사왜곡 비난」에 관한 댓글을 보면, 「(2) 하지만 일본 놈들은 한국 쪽이 왜곡된 역사 교육에 세뇌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¹⁹⁾ 「(3)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과 유대인 학살에 대해 몇 번이나 반성하고 사죄를 하고 있는데... 일본인은 은폐하고 왜곡하고 반성하는 기색조차도 보이지 않다.」는 내용이다. 「영토 내셔널리즘」에 관한 댓글을 보면, 「(17) 대마도, 한국영토!!」 「(18) 하건대 중국의 간도 지방도 한국 영토니까!」라고 했다.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격려와 감사」에 관한 댓글을 보면, 「(1) 자랑스럽다. 당연히 독도는 한국 땅이다.」 「(14) 작은 호소지만, 큰 성과가 되어 돌아오기를 바란다.」 「(15) 나라를 지키려는 열정이 젊은 세대에 게도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 땅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고맙다!」 「(16) 자랑스럽지만 웬지 부끄럽구나.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은 나이인데, 국회의원들도 못한 일을 해내다니.」 「(19) 학생들아, 멋있다!」 「(20) 너희들이 애국자다! 고마워요.」라는 내용들이다.

「올바른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관련되는 댓글을 보면, 「(4) 한중일은 모두 올바른 역사를 배우면 좋겠다.」 「(5) 독도는 대한민국의 것이다. 진심으로 독도는 한국 영토다!!」 「(21)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펴뜨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기관에 편지를 보냅시다. 그리고 독도의 바른 역사를 알립시다!」라는 것이었고, 「정부정책의 부재 비난」에 관한 댓글을 보면, 「(11) 국가가 못한 것 아이들이 해줬다. 정부는 배워라!」 「(12) 이왕이면 이런 청소년들이 정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반응은 「일본 역사왜곡 비난」, 한국영토로서 역사적 권원을 갖고 있는 대마도와 간도가 한국영토라는 「영토 내셔널리즘」적 인식, 그리고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격려와 감사」, 「올바른 역사교육의 필요성」, 「정부정책의 부재를 비난」하는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여기에는 일본측의 반응처럼 상대국을 모욕적으로 부정하는 댓글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본 인터넷 공간을 개설한 관리자는 한국측 반응에 대해 「“일방적인 한국의 역사 인식”을 쓴 편지를 시마네 현의 학교에 보내다니 엉뚱한 학생들이다. 얼마나 왜곡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가 엿보인다. 이 학생들을 영웅 취급하는 한국 국민의 반응을 보면 어이없어 말도 안 나온다.」라고 하여 한국학생들의 활동을 전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본 사이트의 관리자가 우익성향의 인터넷 국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본 대화방의 댓글도 모두 한국을 부정하거나 죽도문제연구회가 날조한

19) 댓글에는 앞뒤의 댓글 간에 연관성이 있어서 숫자로 순서를 표기했다.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익성향의 사이트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는 일본 네티즌들이 시마네현 56개의 중학교에 보낸 한국학생들의 편지를 비판하기 위해 시모조 마사오가 올린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는 날조된 논리에 아무런 비판없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일본 국내의 다양한 매스컴과 학교교육으로 한국영토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일본영토’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학생들이 한국정부의 왜곡된 독도 교육으로 세뇌 당하여 잘못된 영토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4. ‘2찬네루’에서 일본 네티즌의 반응과 표현 방식

4.1 한국의 독도 영유권 비판과 역사왜곡을 주장하는 비판형

일본 네티즌의 반응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비판하고 역사왜곡을 주장하는 비판형, 두 번째는 한국의 국가와 민족을 멸시하는 한국 부정형, 세 번째는 일본정부와 일본 언론을 비판하는 자성론형이 있다.

우선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비판하고 역사왜곡을 주장하는 비판형에 관한 댓글을 보면, 태정관지령 등의 독도의 역사적 권원, 미공군의 독도폭격연습장 지정, 대일평화조약, ‘이승만 라인’(한국의 평화선)²⁰⁾, 국제사법재판소 기탁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즉 「(24) 중학생 정도라면 교과서에 서 잘못 배워 속은 것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 측 주장이 잘못이라는 주장도 자료도 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시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을 지도 모른다. (27) 자신의 영토라는 아무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강치를 멸종시킨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지적 장애 민족. (29) 독도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 등을 연구한 결과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침략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어? 이거 무엇을

20) ‘죽도=일본영토론자’들은 한국의 평화선에 대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한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자가 개인자격으로 불법적으로 ‘이승만라인’을 설정하여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 점령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

근거로 이런 말하는 건가? /(30)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교육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내는 행위는) 자원 낭비야. /(32) 증거가 뭔지 개념조차도 모르는 국가를 상대하는 것은 낭비다. 한국은 자국의 주장이 정말 옳은지 제3자의 입장에 있는 국제 사회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한국이 얼마나 미친 나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36) 먼저 상식을 가르쳐주라. /(34) 재수 없다. 언제 다케시마를 어떻게 점령했는지 알고는 있나? 똥까루 민족야! /(37) 맞다. 바로 그거야. 상식을 가르쳐야해. /(62) 한국은 독도의 영유 근거만 찾지만 하면 결론은 무조건 일본이 나쁘다고 한다.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민족이다. /(63) 다케시마는 시마네현의 것. /(64) 본인은 시마네 현민인데, 시마네 중학생들은 속지 않을 것이다. 마쓰에 역에 대대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간판도 있고, 오히려 다케시마에 관한 역사 교육은 수업이 없어도 알 기회가 많다. 한국의 이런 일본 때리기식의 행위는 결국 시마네 현민들에게 혐한을 부추긴다. /(66) 한국 학생들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근거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직접 조사해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니, 일본이 싫으니 독설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하는 것이다. 미친놈들. /(39) 정말 대단하다. 이것이 왜곡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격찬하는 사회라면 그 나라사람들이 얼마나 세뇌 당했나를 알 수 있는 증거이다. 반대로 일본 학생들이 똑같은 편지를 한국에 보냈다면 분명히 우리(일본어른)들은 학생(일본)들을 야단쳤을 것이다. 정말로 소름 끼친다. /(41) 어리석은 민족이 하는 정책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사상, 신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조차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본적인 인권조차 모르고, 일본 국민을 우롱하는 일에 익숙해져있다. 몇 십 년이 지나면 한국인의 존재조차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쪽으로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고 있다. /(132) 문헌의 기록으로 봐도 독도의 위치는 독도가 아니다. 그거 어느 섬인가 옆에 붙어있는 작은 섬이 독도이다. 이놈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네 섬이라고 말도 안 되는 병신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 중학생들이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아무런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 56개 중학교 지리교사 앞으로 편지를 보내어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하여 일본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일본영토라는 왜곡된 교육을 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에서 왜곡된 교육을 강요당해서 일본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 한국영토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최근 교과서를 개정하여 무라야마담화²¹⁾와 같이 일본의 침략 역사를 반성하는 내용은 거의 사라졌다. 독도가 일본영토인데 한국이 무력으로

21) 1993년 일본 공산당을 제외한 야당이 연립하여 55년 체제의 자민당집권으로부터 정권을 창출했다. 보수정당인 자민당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1994년 총리직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사회당 당수에게 주는 조건으로 진보정당인 사회당과 연립하였다. 이때에 집권정당인 된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 수상이 자민당의 동의 아래, 1995년 8월 15일 전후 5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을 반성하는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무라야마 담화이다.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식으로 학교의 공교육에서도 배우고 매스컴 등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접함으로써 사회적 교육을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배운다. 그래서 이런 한국학생들의 행위가 한국의 어른들에게 세뇌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죽도문제연구회가 날조한 인식이다. 죽도문제연구회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역사적 근거를 과거의 시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현재적 시각으로 해석하여 수많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에 산적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근거를 무시하고 어디에도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근거가 없다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둘째, 일본 네티즌들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역사적 권원에 대해 비판했다. 즉, 「(47)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배웠지만 근거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다. (48) 이 시점에서 깨달아야 한다. 만약에 한국영토라는 근거가 있으면 한국인의 성질로 보면 입에 거품 물고 수천 번 그 증거를 대라고 할 것이고, 미친 듯이 세계에 선전했을 것이다. (49) 학생들의 질문에 답할 때에 일본 땅이라는 확고한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면 될 것이다. 특히 바다사자를 멸종시킨 것은 너희들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바다사자가 사라진 것은 너희들이 점거한 뒤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50)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간단히 답하면 된다. 하지만 비상식적이지만, 저쪽 한국은 성질이 급하므로 보복이 두려울 때면 제일 한국영사관에 화풀이 하면 된다. (51)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근거는 있지만, 한국영토라는 근거는 없다. 한국정부가 세뇌 교육을 하여 학생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조차 모른다. 이런 행위들이 바로 혐한의 이유를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한다. 위안부, 일본해, 욱일기 등 일본을 욕보이는 행동들, 이제 적당히 해라. (84)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국 땅이라고 우기는 주제에, 목숨 걸고 덤비네. (85)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뭔지 기사에 제시해라. 제대로 읽어 볼테니까. 그런데 늘 핵심적인 내용 없다는 게 문제다. (130) 섬(독도)에서 이사하고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다.

요컨대, 전체적인 내용은 ‘죽도’²²⁾가 일본영토라는 확실한 근거는 있어도 한국영토로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뇌교육을 받은 한국학생들이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바다사자는 한국이 말살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하고, 독도를 일본에 넘겨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근거는 시마네현고시⁴⁰호이다. 시마네현 고시⁴⁰호는 각의결정으로 섬에 대한 영토 편입조치를 결정한 것이

22) 독도는 한국영토로서의 명칭이고, ‘다케시마’는 일본인이 사용하는 일본영토로서의 명칭이다. 여기서 ‘죽도’라는 명칭은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인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여 제3의 명칭으로서 사용한 것이다.

고, 당시 섬이 무주지(無主地)였기 때문에 편입 조치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각의결정은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이 은밀한 장소에 모여 몰래 타국의 영토를 도취하기 위해 밀담한 것이기 때문에 타국의 영토에 대해 침략을 모의한 행위이다. 독도는 이미 고대 신라시대 이후 한국측 고문헌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과 만기요람 등²³⁾, 일본측 고문헌인 돗토리번(鳥取藩)답변서,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²⁴⁾,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등에서 역사적 권원이 한국에 있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대한제국이 칙령 41호를 발령하여 “석도(石島)=독도”를 한국영토로 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했다.²⁵⁾ 따라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무주지이기 때문에 일본이 선점했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타국의 영토에 대한 침략행위이다. 따라서 일본 네티즌들의 주장은 일본 국내의 언론이나 학교 교육으로 인해 주입된 날조된 논리에 매몰되어 생긴 것이다.

셋째, 태정관지령에 대해 네티즌들은 「(102) 지금 조센진(한국인)이 증거를 찾아냈다고 콧대가 센 것 같은데, 그 증거가 메이지 정부가 만든 “태정관 문서” 같다. 이것이 바로 항상 마음대로 해석하는 날조 대행진이다. 태정관 문서의 “다케시마와 그외 1섬은 일본령이 아니다”에서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것만으로 바로 조센징(한국인) 영토로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표기는 어디에도 없다.²⁶⁾ 조센징이 마음대로 해석해서 문서에 한국령이라고 쓰여있다고 하는 것은 날조행위.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해서 바로 한국 영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해석인가. 그럼 남극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면 한국령인가? 각국의 관측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왜 침범 행위라고 항의하지 않는가. 달도 일본 땅이 아니니까 조센징 땅인가. 그렇다면 마음대로 국기를 세우고 있는 미국에 왜 항의하지 않는가? 벌써 50년이나 지났다. 게다가 그 문서의 기준이 된 자료 “이소다케시마 약도(磯竹島略図)”는 시마네 현이 의뢰하여 영국인

23) 송병기(1999)『鬱陵島와 獨島』단국대학교출판부. 송병기(2004)『독도영유권 자료선』자료총서34,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신용하(1996)『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지식산업사 참조.

24) 「竹島渡海禁止令」http://ulleung.grandculture.net/Contents?local=ulleung&dataType=01&contents_id=GC01500423 (검색일 2017.12.10). 「조선 측에서는 죽도, 즉 울릉도는 조선의 판도로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다 하고, 앞으로 일본 어민들의 왕래를 금한다는 내용의 서계를 대마도로 보냈다. 대마도주는 이런 조선 측 통보에 승복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막부는 1696년에 죽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여 어민들의 도해금지령(渡海禁止令)을 내리게 된다.」『향토문화전자대전』한국학중앙연구원 참조.

25) 최장근(2014)「독도 명칭; ‘우선도’가 ‘석도’로 전환되는 과정의 고찰」『한국영토 독도의 ‘고유영토론’-미국과 일본의 영토팽창론을 경계한다.』제이앤씨, pp.105-163

26) 막부와 조선조정이 울릉도와 독도를 두고 영토분쟁을 하여 이 섬들이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했다면 한국영토임을 인정한 것이다. 메이지정부가 막부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이 다투고 있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 모두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영토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본문에서처럼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한다고 한국영토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은 일본영토론자들의 비논리적인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선원이 계측하였는데, 계측을 잘못하여 섬의 위치·거리·상관관계가 오류투성이다.²⁷⁾ 그런데 조센징은 망상적으로 보물지도처럼 여기지만, 자료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²⁸⁾ 이때의 ‘다케시마’라는 명칭의 섬은 지금의 한국 영토인 울릉도, 지금 ‘다케시마’(독도의 명칭)는 당시 ‘송도(松島)’라고 했다.²⁹⁾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불리한 자료는 모두 무시하고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이 쓰여진 부분만 발췌하여 과장해서 “일본 정부의 고문서에 적혀 있다”라고 사실을 날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조센징의 주장이다. 정말 살아있을 가치조차 없는 하등생물들이야.”라고 비판했다.

즉 우선은 태정관지령에서 ‘죽도(현재의 울릉도)와 1도(송도, 지금의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다’라고 하면 곧바로 한국영토가 되는가?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소다케시마 약도’는 영국인 선원이 잘못 계측해서 오류투성이라는 것이고, 게다가 ‘다케시마 외 1도’에서 여기의 다케시마는 울릉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명칭과 같다고 해서 한국은 독도라고 우긴다는 것이다.

태정관지령의 ‘죽도의 1도(송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다’라고 말한 경위는 1696년 막부가 안용복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사이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발생한 이후 그 결과로서,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죽도(울릉도)도해금지령’을 내렸던 것이다.³⁰⁾ 따라서 태정관지령에는 17세기 막부의 결정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³¹⁾하고 있기 때문에 ‘죽도와 1도(송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한국영토가 되는 것임에 분명하다. 또한 ‘이소다케시마 약도’는 막부 당시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명칭으로서 다케시마(竹島)와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리었기 때문에 그 지리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절대로 잘못 계측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논리는 최근 ‘죽도문제연구회’의 시모조

27) 이소다케시마 약도(磯竹島略図)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현재의 위치에 잘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이것을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도 비논리적인 억지 주장이다.

28) 메이지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태정관에서 내무성에 내린 공문서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는 아주 높다.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사료이다.

29) 태정관지령에 “죽도(울릉도)와 1도(송도)가 일본영토와 무관하다”라는 것으로 울릉도와 독도 모두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내용이다. 이 댓글은 태정관문서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30) 원문은 「明治十年三月十七日」「内務卿 大久保利通 代理, 内務少輔 前島」가 비밀리 「密」에 「右大臣 岩倉具視殿」에게 보낸 것이다.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라는 제목으로

「竹島所轄之儀ニ付島根縣ヨリ別紙伺出取調候處該島之儀ハ元祿五年朝鮮人入島以來別紙書類ニ摘採スル如ク元祿九年正月第一號舊政府評議之旨意ニ依リ二號譯官ヘ達書三號該國來東四號本邦回答及ヒ口上書等之如ク則元祿十二年ニ至リ夫夫往復相濟本邦關係無之相關候得共版圖ノ取捨ハ重大之事件ニ付別紙書類相添爲念此段相伺候也。」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ms1530&logNo=10026000526>(검색일 2017.12.10)에서 인용.

31) 島根県(2005)「竹島問題研究會」,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검색일 2017.11.12)

마사오가 날조한 논리이다.³²⁾ 일본네티즌들이 이를 아무런 비판없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오류이다.

넷째, 대일평화조약에 대해 일본네티즌들은 「/(88) 분명한 것은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하물며 중학교 때부터 이런 정치적 문제에 빠져드는 것으로 불이익 더 많다. 한국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일본은 사진이나 행정절차를 밟았다는 서류도 갖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도서(독도)가 반환된 사실도 있다. 대일평화조약에 (독도가) 포함되었는지는 몰라도 일본 영토에 포함시켰는데, 국제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증거다. 그들(한국학생들)은 우선 일본의 입장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정당성만 주장하니까 아무런 진전되지 않다. 별다른 외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일본이 왜 강경한가에 대해 좀 더 공부하기 바란다.」라는 것이다.

일본 네티즌이 대일평화조약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도가 일본영토로 반환된 적이 있고,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영토에 포함되었는데 국제사회에서 일본영토임을 인정했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연합국최고사령부가 1946년 1월 SCAPIN 677호로 독도를 한국영토에 포함시켜서 그때부터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³³⁾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때 한국의 지배 상태에 대해 일본을 제외하고는 어느 연합국도 문제시 하지 않았다. 그후 이승만 대통령이 한일간의 해양경계선 문제로 분쟁이 야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평화선을 선언하여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하게 되었을 때에도 일본을 제외하고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한 미국, 영국 등의 연합국 측에서 이를 크게 문제시한 국가는 없었다.³⁴⁾ 그것은 바로 연합국측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로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1948년 미공군이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여 오폭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리고 1952년 독도가 미공군 폭격연습장으로 다시 지정되어 한국정부가 이를 항의했을 때, 주일미공군사령부가 한국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것³⁵⁾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이승만라인’(=평화선)에 대해 일본네티즌들은 「/(90) 오, 먼저 일본 어민들 얼마나

32) 상동.

33)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1946년 1월 29일)로 「SCAPIN 제677호의 부속지도로 작성해서 韓國과 日本의 領土를 구획한 지도와 함께,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리앙쿠르 도) 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시키고, 지도에는 「獨島를 “TAKE”로 표시하여 韓國領土의 부속」 섬으로 표시했다.<http://blog.naver.com/dokdowar/100053624172>(검색일 2017.12.10)

34) 최장근(2014) 「일본정부의 ‘이승만라인’의 불법성 주장의 부당성」 『일본 의회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 제이앤씨, pp.67-100

35) 최장근(2014) 「미일행정협정과 ‘죽도’ 영유권과의 무관성」 『일본 의회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 제이앤씨, pp.101-127

죽었는지 그 사실을 인식하고 말해라. 그때까지 냄새나는 입 쳐닫고, 그만 젖어대라. / (100) 독도를 점령하여 시마네현민을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알고 있는가? / (45) 전후, 어민들을 인질로 삼아 불법 점거한 사건이후, 당시는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이 요란하지 않았는가?」라고 하여 불법적으로 ‘이승만라인’을 획선하여 일본어선을 나포하고 사망하게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죽도문제연구회가 사실을 조작하여 합법적인 일본어선을 한국이 불법적으로 나포하여 억류했다는 식으로 논리를 조작한 것³⁶⁾을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당시 한국의 이승만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선언으로 미국의 점령통치기간에 맥아더사령관이 설치한 맥아더라인에 의거하여 평화선을 설치하여 독도 영토를 비롯하여 한국의 어업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침범하여 위반하는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여 부산 앞바다에 억류시켜다. 한국은 이것을 한일 간의 어업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평화선이라고 불렀다. 이 평화선에 대해 국제사회는 아무런 문제시도 하지 않았고, 1965년 한일협정에서 새로운 어업정이 체결될 때까지 평화선으로 한일 간의 어업질서가 유지되었다. 그것이 불법이었다면 대일평화조약을 조인한 연합국의 중심국가였던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비난함으로써 신생독립국이었던 한국이 평화선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한국이 평화선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일본의 어선들이 불법적으로 한국 근해에 들어와 조업하고 또한 독도에 상륙함으로써 독도와 해양경계선을 둘러싼 전후 한일 간의 외교분쟁은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평화선이 존재했기 때문에 어업분쟁이나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격화되지 않았던 것이다.

여섯째, ‘죽도’ 공군폭격연습장 지정에 관해 일본네티즌들은 「(89) 하지만 일본정부가 허가해서 미군이 다케시마에서 폭격훈련을 하여 한국인이 죽었지! 미국도 일본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일본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았겠쥬」라고 하여 미국공군이 일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다케시마’를 미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이다.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일본이 요구대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지 못하게 되자, 일본은 한국의 독도 실효적 지배를 방해하기 위해 미공군에게 접근하여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³⁷⁾

36) 최장근(2017.5)「죽도문제연구회의 ‘평화선’에 대한 사실 날조 방식」『일본문화학보』제73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31-51

37) 최장근(2014)「미일행정협정과 ‘죽도’ 영유권과의 무관성」『일본 의회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제이앤씨, pp.101-127

그런데 1948년의 오폭사건으로 조업 중이던 30여명의 한국어민의 사상자가 나왔고, 1952년 독도를 방문하려던 한국산악회가 재차 독도가 미공군의 폭격연습지로 지정되는 것을 알게 되어 한국정부가 다시 미공군에 항의하여 미군사령부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오폭사고에 대해서는 사상자에게 보상을 행했고, 한국영토 독도에 대한 재차 폭격연습장 지정을 철회했다. 이것을 보더라도 미국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일행정협정에서 독도를 미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다.³⁸⁾

일곱째,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요청한 것에 대해 일본네티즌들은 「(126) 먼저 이 중학생이 한국 교육 과정에서 한국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어떤 내용(핑계)으로 교육을 받는지 궁금하다. 아무리 지혜가 모자라는 어린애라도 분쟁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어떠한 세뇌의 반일교육으로 국제사법재판소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지 확실히 하고 싶다. 만약 독도가 옛날부터 한국령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가 없다고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다면 정말 구제할 없는 병신조라들이다. (75) 일본이 왜곡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면 된다.」라고 하여 독도가 한일 간의 영토분쟁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한다는 것이고, 한국이 한국영토로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영토분쟁은 당사지가 합의하였을 경우에만 분쟁지역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분쟁지역으로 인정된 영토에 한해서만 판결을 행하는 곳이다. 한국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한국영토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 적이 없었다.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로 불리한 상황³⁹⁾이 될 때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하자고 한국정부에 제의했지만, 한국정부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다.

여덟째, 독도는 한국영토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일본네티즌들은 오히려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왜곡하여 잘못된 교육을 세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65) “일본 놈들은 한국이 오히려 왜곡된 역사 교육으로 세뇌되었다”라고 한국인들은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것 정말인가?

38) 상동.

39) 1954년 한국정부가 평화선을 설치하여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였을 때, 1962년 한일회담을 할 때 한국정부가 독도문제를 의제로 삼는 것을 거부했을 때,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였을 때이다.

한국이 이 정도로 심각한가? 한국이라는 종교 단체 같다. 이것 이제 정말로 무섭구나. /(68) 엄청 심각한 한국의 세뇌 교육에 대해 국제 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71) 자신들 (한국) 자료만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바보들. 전혀 객관성이 없다. 자신들의 생각만 밀어붙이고 상대방의 기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을 교사가 만류하기는커녕, 시키고 있다는 사실 계속해서 쓰레기들만 배출될 거다. /(72) 그냥 한마디로 과시즘 교육. /(76) 그 세월호라고 말하는 침몰 선박에서 죽은 그 아이들도 이 녀석들과 같은 교육을 받고 있었겠구나. 지금 일자리를 찾아서 원숭이반도(조선반도)에서 대량으로 일본에 이민을 오고 있지만, 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 녀석들과 같다. 절대로 친구나 동료가 될 수 없구나. /(78) 이런 행동은 일본에서는 스탠드 플레이라고 한다. 한국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업 활동하는 것이 반일을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으로 주입된 한국 국민의 본래의 모습인가. 국시(國是)인가. 정신 좀 차리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81) ※영토 문제의 사실관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런 놈들이 자라서 장래에 당연한 권리처럼 사실을 조작한다. 일본은 과거부터 일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 /(113) 입장을 바꿔 말하면, 우익교육이라고 하여 조선인들은 야단법석일거다. /(44) 한국은 망해버리면 된다. 거짓 조작의 역사 교육으로 국민을 바보 만드는 우민(愚民) 민주주의가 망하는 것을 볼뿐이다. 독도를 일본에 반환하는 것이 한국인의 반성이라고 본다. 뭐 오히려 망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 /(73) 한국학생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배웠지만 그 근거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도 문제의 쟁점이 무엇인지 등을 연구한 결과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침략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는가?!?!?!?www40) 모르면 말을 하지마. www결국 그 근거라고는 찾았는가?www /(114) 일본은 다케시마를 무력으로 점거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은 무력으로 다케시마를 점거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세뇌교육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지금 일본정부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반면 한국은 어릴 때부터의 세뇌교육으로 활동을 강요하고 있다, 또는 도서관 등의 역사자료를 날조하는 등 테러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 어느 쪽이 더 세뇌되었는지 객관적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107) 그런 가벼운 소설(오락소설)은 자국 출판사에나 보내라. (118) 한국인의 비상식과 반일 컬트 종교관은 전해져서 확산되었다. 「(119)w여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없나? 아마 모두 축제하듯이 동의할텐데(‘V’) /(120) 맞다. 아이 때부터 미친 놈 교육을 시키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미친놈들이 건재하다. /(121)

40) 이런 기호는 자료에 있는 그대로 인용하였음.

맞다. 이대로 한국이 망할 때까지 미친놈 세상이 되기를 /(123) 이런 것이 학교 서클활동인가? 그런 것, 텔레비전에서 본적이 있는데, 신흥종교 활동 같아서 기분 나쁘다는 인상밖에 없었다. 그것 “세뇌”라는 말이 딱 맞다. /(127) 바로 이 기사이구나. ; 「산인(山陰)중앙신보」 “한국 중학생 3명이 역사교육 비판의 편지, 다케시마 인근의 시마네현 56개 중학교에 (<https://www.sanin-chuo.co.jp/newspack/modules/news/article.php?storyid=1460410011>)” /(129)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감정론을 퍼더라도 한국이 이길 승산은 없다. www. /(131) (학생들의 편지는) 교육의 산물이다.」라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학생들은 거짓된 조작의 역사교육으로 세뇌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단체와 같아서 어른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독도 영유권을 비롯해서 자신들이 세뇌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 한국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패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독도의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본 네티즌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아홉 번째, 일본네티즌들의 위안부문제에 대한 역사인식은 「/(57) 실제로 창녀를 모집하는 신문기사도 남아 있고 또, 위안소의 당변을 했다고 하는 한국인의 수기도 남아 있지 않는가? 매춘부들도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여 위안부는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자원한 매춘부나 창녀들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본네티즌들의 영토관은 「/(134) 우리도 다케시마(독도)가 왜 옛날부터 일본영토, 영해였는지를 설명해서 편지를 보내야한다. 더불어 왜 한국이 옛날에 일본의 영토였는지도 전해야한다. 일본 천황이 백제로부터 머느리를 데리고 왔던 시대에 한국은 일본의 영토였다. 예전에는 북한과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었다. 중국도 조선도 일본의 영토였다. 고대 유적에서 그 증거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여 고대시대부터 조선은 일본영토였고, 또한 중국도 일본영토였다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

요컨대, 태정관지령은 메이지정부의 태정관이 1877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히 공문서로 남긴 것이다. 그런데 일본네티즌들은 태정관지령에서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바로 한국영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막부가 1696년 ‘죽도(=울릉도)도해금지령’을 내릴 때,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독도가 한국영토가 되었다는 사실을 태정관지령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⁴¹⁾ 대일평화조

41) 원문은 「明治十年三月十七日」 内務卿 大久保利通 代理, 内務少輔 前島가 비밀리 「密」에 「右大臣 岩倉具視殿」에게 보낸 것이다.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同」라는 제목으로

「竹島所轄之儀ニ付島根縣ヨリ別紙伺出取調候處該島之儀ハ元祿五年朝鮮人入島以來別紙書類ニ摘採スル如ク元祿九年正月第一號舊政府評議之旨意

약에서는 일본네티즌들은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대일평화조약에서는 독도의 지위에 관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을 상대로 평화조약을 체결했던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조약체결 당사국이었던 연합국들이 이를 문제로 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미국의 점령통치시대에 미일행정협정으로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도 실효적 지배 상태를 방해하기 위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일미군에 접근하여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할 것을 로비하여 생긴 것이었다. 평화선에 대해서도 일본은 한국의 이승만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획선하여 독도를 점령하고 일본어선과 어업자를 살해하였다고 하여 불법적인 ‘이승만라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평화선은 1965년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한일 양국의 해양경계로서 평화적으로 어업질서를 유지해왔던 것이다. 또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어서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여러 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한국정부에 건의했지만,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이 분쟁지역임을 합의한 것에 한해서 판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독도문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한 한국이 역사문제나 독도 영유권을 왜곡해서 학생들에게 세뇌시키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측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유권을 날조하여 학생들에게 왜곡된 교육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학생들이 사실과 다르게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논증한 것처럼 일본의 네티즌들은 시모조 마사오가 조작한 잘못된 논리를 아무런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왜곡된 영토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4.2 한국 국가와 민족을 멸시하는 한국 부정형

한국 중학생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인터넷공간에서 일본네티즌들이 댓글을 달면서 한국정부와 편지를 보낸 학생들을 비판하고 동시에 한국의

ニ依リ二號譯官へ達書三號該國來東四號本邦回答及ヒ口上書等之如ク則
元祿十二年ニ至リ夫夫往復相濟本邦關係無之相關候得共版圖ノ取捨ハ重大
之事件ニ付別紙書類相添爲念此段相伺候也。」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ms1530&logNo=10026000526>(검색일 2017.12.10.))에서 인용.

국가와 국민을 부정하고 있다.

우선 한국정부를 부정하는 댓글로서, 「(43) 아이를 도구로 삼고 지금 자신(어른)들이 좋다면 그 아이들이 살해당해도 좋은가? 아이들을 타이틀 용기도 능력도 생각조차 없는가? 역사와 미래를 지키려는 생각도 없는가? 이런 상태까지 되면 정말로 그냥 침묵에 불과하다.」라고 하여 한국정부(어른들)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학생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일본의 침략적 영토도발에 대항하여 영토를 지킬 의무가 있다.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교육을 시키는 일본교사들에게 잘못된 영토교육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올바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만일 학생들이 학교에서 독도 영토교육을 받지 않아서 일본의 선동에 넘어가서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인식하게 된다면 독도를 잃게 될 것이고, 결국 영토를 잃은 민족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 국가에 대한 일본네티즌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극에 달했다. 즉, 「(46) 아직도 한국에도 선량한 국민이 있다고 속이는 인간(좌편향 일본인)에게는 이제 어이 없이 쓴웃음만 나온다. 한국은 1을 위해 1천, 1만을 버리는 미친놈들이다. 지능이 얼마나 낮았으면 이런 학생까지 세뇌시키는가? (22) 엄청난 이런 일 하는 민족은 세계에서도 조센징뿐이다. 일본의 인터넷민은 이 조센징의 민폐 행위를 확산시켜야 한다. 어차피 일본의 매스컴 쓰레기들은 보도하지 않을 테니까. (23) 이런 것은 범죄행위가 아닌가? 일본을 괴롭히는 짓이다. (25) 한국은 위에서 아래까지 모든 국민이 데모꾼들이다. (26) 말문이 막힌다. 웬지 섬뜩하다. (28) 인류의 기원은 한국!!한국 만세! (31) 정말로 기분 나쁜 민족.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다. (33) 한국인은 쓰레기 같은 민족이다.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해라. (35) 일본에 대한 민폐 행위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네. 한국인은 국민은 모두 반일. (38) 어떤 정신 구조로 보냈을까 조선 민족 특유의 뇌 속에 마약증상, 마약에 취했나? (40) 한국은 이제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 끝이다. (79) 문화라고 하기보다는, 머리통 구조부터 다르다. 대화할 상대가 아니다. (80) 병신이나 미친놈들이 찬양받고 영웅취급 받는 남조선. (82) 불행을 강요하는 편지 같다.w 조선인들은 아예 죽는 편이 낫다w (83) 분명히 “해외의 반응”인 것에는 틀림없지만, 이거 모두 “한국의 반응”뿐이잖아? (86) 대량이라고? 단지 1장에 편지 1통뿐잖아. 다이렉트 메일 같은 것, 쓰레기통에 갖다버리라. (87)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내 것도 아니지만, 물론 니네 것도 아니다. 본 적도 없는 남의 것이지만, 영토문제이라는 것은 악정(惡政)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도구다. (53) 장래에 저질 한국을 공격하여 전쟁으로 모두 죽여 버려야 된다. (54) 조선인들 병신들이다. (55) 제2차 세계대전 때 조선은 일본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미국이 서울과 평양에 폭탄을 떨어뜨려야 했다. 폭탄의 아깝다는 말(댓글)도 있지만, 그러나 조선(한국)전쟁 때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수만 명 목숨을 잃었다. 한반도가 멸망했다면 그들의 생명은 구했을 것인데. /(56) 이 조센징들 모두 미친놈이라고 세계에 알려졌으면 좋겠다. /(59) 한국인은 정말 마음 속 밑바탕과 머리까지 이상하다. /(67) 집단 따돌림은 절대로 바로 잡아야 하지만, 그 나라(한국) 국민들만은 전 세계에서 왕따가 되어야 마땅하다. “구분”이라는 좋은 말은 가당치 않다. 한국인은 “차별” 당해야 마땅하다. 국제대회에서 스케이팅 심판의 불신을 주장하고, 축구의 골 세리머니를 할 때 엄청 놀랐지만 그것은 “서장”이었다. 역시 한국은 세계의 기준과 다른 뇌구조를 갖고 있네. /(91) 국가, 국민 모두가 중병이다. 아마 큰 변화가 없으면 낫지 않는다. /(106) 편지(한국학생들의 편지)가 김치 양념이다. /(111) 케이팝은 한물간 것(컨텐츠)이다. /(116) 이성적이지 못한 자와는 상대하지 않는 것이 낫다. /(125) 바로 모든 국민이 미친 세계, 이놈들 언제까지 인류의 범주에 넣어 두는 거야? 짐승보다 못한 놈들. /(135) 라이 다이 한(베트남전쟁때 한국군과 베트남 여성사이에 태어난 자녀), 코피노(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조선진주군, 제3국인, 후쓰카이치(二日市)휴양소, 천황암살미수사건, 사쿠라다문(桜田門)사건, 이토 히로부미 암살, 안중근, 테러리스트 찬양기념관, 한국 입국 금지, 한국인과의 결혼 금지, 관동대지진 때의 이재민 살해, 개 고양이 학살 식문화, 식인문화, 똥 먹는 문화. 전~부 한국인을 지칭하는 국제적 용어. 헤이트 스피치도 전문용어이다.」라고 했다.

요컨대, 한국 사람들은 뇌구조가 정상이 아니라서 한국 국가와 국민이 모두 중병한자이다. 따라서 더 이상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국가와 민족이라고 막말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부정적인 사고는 상상을 초월했다.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성향에 대해 일본네티즌들은 「/(61) 한국은 부정투성이인데, 자신들의 교과서는 옳다고 잘들 믿는다. 일본책의 표지만 바꾸어 책을 내는 그런 교수가 무더기 있다는데, 이름자에 교수자만 붙어있으면 뭐든지 믿는다. /(70) 한국 사람들은 학생들이 일본을 비난하는 편지를 보낸 것을 “자랑스럽다”고 하는데, 정말 “이놈들과는 같이 어울릴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122) 외국의 도서관에 있는 지도나 귀중한 자료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낙서하는 것을 영웅이라 칭찬하는 나라. 다들 미친놈들이다. 이런 놈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58) 이거 일본에 이런 뉴스 있었나? 이런 뉴스는 항상 인터넷에서 처음 알게 된다. 그런데 일본 학생들이 한국에 독도에 대한 편지를 보낸다면, 아마 한국 국회까지 야단법석일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편지테러이다.」라고 하여 한국민족은 세계에서 보기도 드문 아주 부도덕한 민족이라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거리낌 없이 했다.

시마네현의 56개 중학교에 편지를 보낸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일본네티즌들은 「/(52)

조선인들 병신들이다. 일본 학생에게 보냈다는 말에 한국인 같은 자들에게는 흥미도 관심도 없다. 함부로 막 보내면서 그것도 일본어도 아니다. 배려라고는 전혀 없다. 뻔뻔스러워도 분수가 있어야지. 다시 돌려보내라. /(60) 왜 시마네에 보냈을까? /(124) 아니, 이것, 범죄 행위 아닌가? 스팸 메일! /(133) 잘 한 짓이라고 똥이라도 선물로 보내라! /(94) 훌륭한 학생들이다. 한국정부는 그들에게 부상으로 페리로 일본에 수학여행이라도 보내는가? /(95) 가공의 섬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의미 불명한 행동들. 한국 학생들은 미래가 없다. /(96) 힘내라. 그 기세로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편지 보내는 것)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어떨까? /(98) 도둑이 제멋대로 편지 보내는데, 범죄자는 밖으로 못나오도록 격리시켜야. /(99) 말로는 객관적, 메타 인식, 감정론은 안 된다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범죄자들도 많다. /(109) 이런 행동(한국 학생들의 독도 일본영토 교육을 비판하는 편지)을 칭찬하는 것은 한국답다.」라고 하여 한국 학생들이 하는 행위는 스팸메일과 같은 것으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일삼는 한국 학생들은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5. 맺으면서

본 연구는 함평중학교 독도동아리 학생 3명이 일본 시마네현 56개 중학교에 왜곡된 독도교육을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고, 죽도문제연구회가 이 사실을 언론과 인터넷 공간인 ‘2찬네루’에 보내어 논란이 된 네티즌들의 댓글을 분석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논리적 모순성’을 고찰한 것이다. 연구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함평중학교 3학년 3명의 독도 동아리 학생이 일본정부가 ‘죽도’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시마네현 56개 중학교에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독도가 한국영토로서의 역사적 근거와 함께 왜곡된 일본의 ‘죽도’ 영토교육을 일본 학생들에게 교육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둘째,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격인 시모조 마사오가 시마네현 죽도자료실에서 한국학생들이 보낸 편지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언론 및 인터넷 공간의 ‘2찬네루’ 토론방에 편지내용과 더불어 자신의 의견을 보냈다. 우익성향의 ‘2찬네루’ 토론방에서는 시모조가 날조한 ‘죽도’ 영유권 논리를 바탕으로 일본의 ‘죽도’ 영유권 교육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낸 한국학생들을 비롯해서 한국의 국민과 국가를 부정하는 막말을 쏟아내었다.

셋째, ‘2찬네루’의 토론방은 우익성향의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의 국민과 국가를 비난하기

위해 개설된 곳이었는데. 이곳에는 한국의 네티즌들도 들어와서 일본 네티즌의 막말에 대항해서 한국학생들이 용기있는 큰일을 해냈다고 격찬했다.

넷째, ‘2찬네루’에서는 편지를 보낸 한국학생들을 비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 학생들을 지도한 어른들(교사들)도 싸잡아 비판했다. 즉 한국 국민과 국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패륜국민이자 패륜국가라고 규정하여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는 한국 중학생들의 편지에 대한 일본네티즌들의 대응방식을 분석한 것이다. 일본네티즌들의 댓글은 모두 일률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한국의 입장에 대항하여 비논리적 방법으로 부정하는데 급급했다. 이러한 인식은 분명히 일본인 전체를 대표하는 인식은 아니다. 그래서 다음의 연구과제로서는 중도와 좌편향 일본인들의 독도 영유권 인식에 대해서도 인터넷공간의 댓글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나이트 세이쥬우(2005)『獨島와 竹島』제이앤씨
 송병기(1999)『鬱陵島와 獨島』단국대학교출판부
 _____(2004)『독도영유권 자료선』자료총서34,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오오니시 도시테루(2004)『獨島』제이앤씨
 신용하(1996)『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지식산업사
 _____(1996)『독도, 보배로운 한국영토』지식산업사
 최장근(2014)『한국영토 독도의 ‘고유영토론’ -미국과 일본의 영토팽창론을 경계한다-』제이앤씨, pp.105-163
 _____(2014)『일본 의회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제이앤씨, pp.101-127
 _____(2017.5)『죽도문제연구회의 ‘평화선’에 대한 사실 날조 방식』『일본문화학보』제73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31-51
 _____(2017.11)『죽도문제연구회의 독도영유권 날조와 선동 방식 -한국 함평중학교 학생이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일본문화학보』제75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5-24
 奥原碧雲(1906)『竹島及鬱陵島』松江：報光社
 梶村秀樹(1978)『竹島=獨島問題と日本国家』『朝鮮研究』182
 川上健三(1966)『竹島の歴史地理的研究』古今書院
 島根県(田村清三郎)편(1954)『島根県竹島の研究』
 下条正男(2004)『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親書377
 _____(2005)『‘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田村清三郎(1965)『島根県竹島の新研究』島根県総務部総務課, pp.1-159
 堀和生(1987)『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朝鮮史研究会論文集』24
 山辺健太郎(1965)『竹島問題の歴史的展開』『コリア評論』7-2
 内藤正中・金柄烈(2007)『歴史的検証獨島・竹島』岩波書店
 内藤正中・朴炳涉(2007)『竹島=獨島論争—歴史から考える—』新幹社
 「島根県内の中学校に届いた手紙」,

<http://www.sankei.com/images/news/170804/wst1708040002-p1.jpg>(검색일 2017.11.20.)

「竹島問題」(일본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검색일 2017.09.03.)

「竹島問題研究會(島根県)」, <http://www.pref.shimane.lg.jp/soumu/web-takeshima/>(검색일 2017.09.03.)

「【竹島問題】‘日本は正しい’歴史を教えよ’韓国中学生が送りつけた手紙から見える‘子供の政治利用’‘教育の洗脳」, <http://lavender.2ch.net/test/read.cgi/news4plus/1501792966/>(검색일 2017.09.12.)

논문투고일 : 2018년 01월 04일

심사개시일 : 2018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18년 02월 09일

2차 수정일 : 2018년 0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8년 02월 19일

 <要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논리적 모순성 연구

최창근

함평중학교 독도동아리 학생들이 시마네현에 일본의 왜곡된 독도영유권 교육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내었다. 죽도문제연구회의 시모조 마사오가 편지내용을 비판하는 사적인 의견을 2찬네루²에 게재했다. 2찬네루는 일본 우익성향의 네티즌이 활동하는 곳이었다. 이들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영유권을 날조하는 시모조를 독도연구의 제1인자라고 칭한다. 이들 우익성향의 일본네티즌들은 시모조의 선동대로 한국의 어른들이 학생들을 정치에 이용했고, 학생들은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세뇌 당했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한국 자체를 부정했다. 편지를 보낸 학생들은 미래가 없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한국 국민은 짐승과 같은 존재이므로 멸망해야한다. 네티즌들은 일본 측도 비난했다. 한국을 두둔하는 일본인들은 반성해야한다. 일본정부도 적극적으로 독도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일본 언론도 일본영토를 적극적으로 보도해야한다.

A Study on the Logical Contradiction of Japan's claim to Dokdo

Choi, Jang-Keun

Students at the Hampyeong Middle School Dokdo Club sent a letter to Shimane Prefecture criticizing Japan's distorted Dokdo territorial rights education. Masao Shimozo of the Jukdo Issue Research Society criticized the contents of the letter posted in 2 Chanelu. 2 Chanelu was a place where netizens of Japanese right-wing tendency were active. They refer to Shimozo, who is claiming Dokdo as Japanese territory, as the first factor in Dokdo's study. These right-wing Japanese netizens were used to politics by South Korean adults as Shimoo's agitation, and students were brainwashed with Dokdo as Korean territory. Netizens denied Korea itself. Students who have sent letters have no future. Korea is not worthy of existence. The Korean people must be destroyed because they are like beasts. Netizens also criticized Japan. The Japanese who defend Korea should reflect.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actively pursue Dokdo policy. The Japanese press must actively report on Japanese territory.